

로버트 치죤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세션 1A: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린다(아모스 1:1-2:16)

로버트 치죤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니,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1부(A),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린다(아모스 1:1-2:16).

아모스서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모스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그를 아모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열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두 권이라고 부르는 소선지서 중 하나인데, 아모스는 그중 세 번째 책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가 있으니 성경에서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모스서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본문을 구절별로,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쪽 읽어 보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멈춰서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론인 1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NIV 2011판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드고아의 목자 중 한 명인 아모스가 지진이 나기 2년 전, 웃시야가 유다 왕으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해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웃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에 예언했고,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 왕입니다.

93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후대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었고, 역사가들은 그를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며,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기원전 930년에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웃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와 오랫동안 공동 섭정을 했지만, 기원전 767년부터 740년까지 유다를 독립적으로 통치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또한 한동안 공동 섭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독립적인 통치자였던 기간을 찾고 있는데 , 그것은 767년에서 753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모스가 그 기간에 사역을 했다고 믿습니다.

제목은 또한 지진이 발생하기 2년 전에 북왕국에서 예언한 사람이 아모스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지진은 특히 잘 알려진 지진이었습니다. 하술에 이 지진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있으므로, 그 지진의 발생 연대를 약 760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나타나 그보다 몇 년 앞서 예언했는데, 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원전 760년에는 아시리아가 주요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기원전 800년대, 즉 9세기에 지중해까지 확장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하고 아시리아 통치자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이 시기에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는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던 시기 였습니다 . 하지만 기원전 745년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세 번째 왕 디글랏-빌레셀은 서쪽, 나아가 지중해까지 아시리아의 세력을 재건하려 합니다. 아시리아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며, 아모스는 그의 예언에서 이를 실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타나서 환난이 오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번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들에게는 상황이 비교적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이지만 , 이 제목이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도 언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언제 사역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아모스가 직업상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7장에서 그가 포도원지기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목동들은 때때로 다른 농사일을 하기도 했기에, 그는 전문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7장에서 자신이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신도에 가깝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그 역시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그는 유다 출신인데, 국경을 넘어 북왕국으로 올라와 북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해 사역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대중적인 메시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왕관은 그에게 화를 낼 것이고, 7장에서 우리는 그가 베델의 제사장과 마주치는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꺼져야 해. 떠나야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목동이고 데고아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본문은 이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권위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문화권, 당시 근동 세계에서는 지진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세상에 직접 개입한다고 믿었고, 일어나는 일들은 신의 영역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판의 징조였을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특히 8장과 9장을 보면 아모스가 주님께서 오셔서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흔히 신현(神現)이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오실 때, 즉 심판과 전쟁을 위해 오실 때, 땅을 진동시키는 모티프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설교하는 것을 방금 들으셨죠? 그는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어쩌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확증해 줍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은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이는 2절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자, 2절을 읽어 봅시다. 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사실, 3장에서 아모스는 주님을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주님께서 시온에서 으르렁거리신다는 뜻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따라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북왕국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아니라 그들의 성소 중 하나에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천둥을 치십니다. 그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시온과 병행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음성을 내시는데, 이는 천둥을 뜻하는 관용어입니다. 즉, 그분은 포효하고, 천둥을 치시며, 전투를 벌이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 전사로 오십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목자들의 목초지가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전사로 오실 때, 갈멜산처럼 울창한 숲이 우거진 목초지는 말라 버릴 것입니다. 가뭄이 들 것입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지자들을 읽을 때 그들이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내용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율법에 어긋나는, 마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혁신가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선지자들 뒤에 율법을 두곤 합니다.

음, 그건 틀렸습니다. 대학에서 그런 말을 아주, 아주 자주 듣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온 사자로, 모세가 한 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심판의 말을 통해 백성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선지자들의 심판의 말을 신명기와 율법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연관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에 관해서,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가뭄, 기근, 자녀를 잃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배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판을 선포할 때, 그들은 우리가 언약의 저주라고 부르는 것, 즉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심판의 위협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을 읽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시간을 내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8, 23, 24절을 보시면 가뭄이 저주 아래 있다는 신호,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모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모세가 경고했던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처음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모스서 개요에서, 저는 우리가 시작할 다음 부분을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는 장면으로 부르는데, 이는 1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제목과 첫 번째 선언에 이어,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울부짖고 시온에서 천둥을 치며 온 세상이 그 결과로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제 그는 특정 민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부분을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완전히 이방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으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완전한 이방인'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먼 친척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1장 11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2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주요 표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먼저 숲, 즉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신탁들 각각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흥미진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아모스의 주요 표적 집단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유다에서 북왕국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곳의 권력자들과 왕과 마찰을 빚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북왕국 백성들은 왕의 통치 아래 어느 정도 번영을 누렸고, 요나는 열왕기하에서 이를 예언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그는 열왕기하 14장에, 그리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 주일을 일요일로 생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사실 관용어입니다. 더글러스 스튜어트라는 학자가 50년 전에 한 연구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입증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력한 전사 왕이 자신의 전성기를 누렸던 곳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의 전성기는 전사로서 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어쩌면 단 하루 만에 물리친 날이었습니다. 마치 전투를 치르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만나고 싸우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 만에 전체 전쟁을 끝냅니다. 구약성경은 그 비유를 인용하여 주의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주의 날은 언제든 적용될 수 있으며, 때로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종말론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종의 종말론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절정에 달하는 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에서 이에 대해 읽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절정의 날이며, 주님의 역사적인 날들은 종종 주님의 절정의 날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전장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날은 빛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구원과 새 삶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것이었고, 그 사실은 5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장에 이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실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마치 북왕국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서두를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북왕국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그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환호할 겁니다.

그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분이 노골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람 사람들, 즉 오늘날 우리가 북왕국 북동쪽 시리아라고 부르는 지역에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를 읽으면서 역사를 떠올려 보면,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치렀고, 대부분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패배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왕국 경계의 남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는 그들의 다섯 주요 도시 중 네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북왕국 북서쪽 국경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들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각 예언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제가 먼 친척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 사해 건너편으로 가서 에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서 에돔 사람들은 사실상 유다와 이스라엘의 숙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때때로 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에돔 사람들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은 남쪽, 사해 남동쪽, 이스라엘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유다와는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모압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에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에돔,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그들의 조상이고, 흥미롭게도 야곱과 에서는 생전에 화해한 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도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롯의 후손들이었죠. 롯이 소돔에서 도망쳤을 때, 그의 딸들이 그의 후손을 잇는 데 신경을 썼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근친상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친척이었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백성이 그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판결에 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아주 가까운 외국인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심판은 대부분 우리 동쪽과 남쪽에 있는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쪽에 있는 유다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사이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때로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은 유다 출신이지만, 유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 목록에서 7번째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종종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세계 전역에서, 그것은 문화 전반, 더

넓은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숫자 7은 완전함, 때로는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에 대한 일련의 심판 신탁을 구성하다 보면, 숫자 7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에게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덟 번째 신탁이 있거든요. 여덟 번째 신탁이요. 그리고 가끔 문화권에서는 "일곱, 예, 여덟" 같은 공식을 쓰곤 합니다.

X, X에 하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일곱, 아니, 여덟. 그러니까, 보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얻으실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내리실 겁니다. 아모스는 5장에서 "주의 날이 오겠지만, 빛의 날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빛과 구원의 날이 아닐 것입니다. 어둠과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수사적 기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여기 와서 너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고, 그것이 그를 곤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각각의 신탁을 살펴본 후, 아모스가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더 미묘한 기법입니다.

앞으로 신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귀납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지만, 처음부터 이 나라들이 주요 표적이 아니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신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국의 수도인 다메섹에 대한 신탁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의 세 가지 죄, 네 가지 죄 때문에라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자, 방금 그가 뭘 했는지 보세요? 우리는 X, X 더하기 1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7과 8을 사용했지만, 3, 4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숫자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3, 4는 세 가지 죄에 대한 것입니다. 네, 네 가지 죄에 대한 패턴은 잠언 30장에 나타납니다. 이 패턴은 때때로

숫자 격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잠언에 나오는 숫자 격언에 대해 쓴 책, 짧은 논문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격언들을 공부해 보면, 3, 4를 보면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두 번째 숫자는 두 번째 숫자에 대응한다고 예상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동의어 병렬 구조를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동의어 병렬 구조를 사용할 때, 즉 같은 단어를 말하고 또 약간 다르게 말할 때, 숫자로 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아래로 내려가서 두 번째 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숫자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 말이죠. 목록은 두 번째 숫자에 해당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고, 네 번째 숫자가 강조되어 있을 텐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다메섹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 아니, 네 가지로 하자. 나는 결코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구절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죄악"으로 번역되는 단어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죄, 불의, 범법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다양한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페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페샤"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께 대한 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종속국이 지배자에 대한 반역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역으로 보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반역이죠. 죄가 페샤로 묘사될 때, 실제로는 죄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물론,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창세기에서 민족들이 어떻게 다시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만의 신, 수호신이 있었죠. 예를 들어 모압의 케모스, 암몬의 밀곰처럼요. 그래서 주님을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과 아모스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과 선지자의 생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는 주님께서 노아의 명령을 통해 민족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주님은 노아에게 "너희가 서로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은 노아에게 반복되었고, 따라서 노아의 모든 후손, 즉 아담과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다시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형의 근거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24장에서 주님께서 온 땅에 심판을 내리시며, 그들이 베리트 올람(Berit Olam) , 즉 영원한 언약이나 조약을 어떻게 어겼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노아에게 명령한 언약 관계를 언약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국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서로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열국은 국가적 또는 대규모로 동료 인간을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이걸 글로 썼기 때문에 제 해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 생각을 고수할 겁니다. 보통 글로 쓰기 전에 아주,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아직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이 노아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탁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들이 모두 다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라는 노아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원칙상로나 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노아의 명령이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권위입니다.

어쨌든, 자세히 살펴보죠. 세 개나 네 개 정도요. NIV에서는 "그녀"로 번역했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그들"입니다 . 왜냐하면 그들은 철이 달린 썰매로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고밭은 하나뿐이다. 심판도 하나다. 그러므로 그 때문에 내가 하자엘의 집에 불을 보내어 벤하닷의 요새들을 삼키리라.

내가 다메섹의 문을 열어 버리겠다. 아텐 골짜기에 있는 왕과 베테스다에서 홀을 잡은 자를 멸하리라 . 이 모든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배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이것으로 그 예언은 끝이다. 그리고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겠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범죄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와, 이거 뭔가 간소화하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럴까요? 음, 아람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말을 해야 하니까 일을 간소화할 거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딱 한 번의 범죄였을 뿐인데.

길르앗을 타작하는 쇠이빨 달린 썰매. 이는 농경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곡식을 거두어 타작 마당으로 가져가면, 바닥에 날카로운 못이 박힌 타작 썰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그것을 타작 마당으로 가져가서, 껌질과 곡식을 분리했습니다. 그것은 수확 과정의 일부 였습니다 . 어떤 면에서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기 8장에서 적들에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은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적인 시이며, 길르앗 사람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 요단 강 동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치 철 이가 달린 썰매로 타작하듯이 그들을 때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전쟁 중의 잔혹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와 이 시대에 전쟁은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입했고,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노아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철 이빨이 달린 썰매로 타작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할 때, 당신은 동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을 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자엘의 집에 불을 보내 리라 . 하자엘은 아람 왕이었고, 벤하닷의 요새들을 불태우려 했다. 하자엘은 벤하닷을 죽임으로써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벤하닷이었다.

이것들은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던 왕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 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에도 물과 함께 홍수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발견했듯이, 그것은 자연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자엘의 집 에 궁극적인 파괴 도구인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

다시 말해, 그는 아람 왕국을 공격할 것이며, 왕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꼭대기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의 성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마스쿠스는 그들의 주요 도시이며, 성문은 방어 체계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 문을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읍은 침략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벳 아빈 골짜기에 있는 왕을 멸망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다르게 처리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베카'라는 단어가 계곡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바논에 있는 베카 계곡과 연관 짓기도 하지만, 아빈은 사악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사악함의 계곡에 있는 왕”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차지한 골짜기는 악으로 특징지어지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 그래서 교회 이름을 절대 베스 아빈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베스 아빈 성경 교회, 악의 집.

아니, 그러지 마. 영어로는 좋게 들리지만, 그러지 마. 그러니 내가 아빈 골짜기, 곧 악의 골짜기에 있는 왕과 베이트 에덴에서 홀을 쥐고 있는 자를 멸하리라.

일부 학자들은 이 장소를 아람 지역과 연관 짓습니다. 아카드어로 베이트 아디니라고 불리는 이곳은 다마스쿠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지만 , 실제로는 아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에덴은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집이라는 표현은 아이러니합니다.

기쁨의 집, 어쩌면 번영의 집에서 통치의 상징인 홀을 쥐고 있는 자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백성은 기르로 유배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르가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모스 9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아람 사람들을 기르라는 곳에서 처음 인도하신 분임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그들은 기르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이주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르로 유배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역사가 역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미묘한 뉘앙스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배경 지식을 쌓고 책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의문이 생기면, 다시 돌아와 두 번째 읽으세요. 전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많은 세부 사항들이 두 번째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을 향한 신탁입니다. 아람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환호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자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블레셋 성읍 가자입니다. 네 가지 죄악이 있어도 나는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내가 심판의 선고를 철회하지 아니하리라", 또는 "내가 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 가지 죄, 네 가지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네 가지 목록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녀가 온 마을을 포로로 잡아 에돔에 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납치와 노예 무역이죠.

음,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그게 다다.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 그 요새들을 삼켜 버릴 것이다. 아스돗 왕과 아스글론에서 홀을 쥐고 있는 자도 멸하리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마지막이 죽을 때까지 에그론을 치리니, 이는 내 손을 돌이켜 블레셋 사람들의 마지막이 다 죽을 때까지라. 그러므로 블레셋의 다섯 주요 성읍 중 네 곳이 거기에 언급된 것에 주목하라. 갓은 어떻게 되었느냐? 6장에 나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갓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이 네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그들이 영주들의 지배를 받았고, 사실상 연합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전체를 블레셋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 그 심판을 보세요.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꼭 그들을 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살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다른 인간들 안에 있는 신의 형상에 대한 불경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전쟁 이전, 즉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시대를 다루는 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1차 자료를 읽어야 했죠.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 남부 노예 소유주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성경에 호소하여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의 이 구절은 당시 존재했던 노예 제도를 뒤집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하여 노예로 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른 부족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납치하여 해안에서 팔았고, 그들은 그곳을 건너왔습니다.

그건 그냥 사이드바 토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논쟁에 참여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그 논쟁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노예 소유주들이 성경에 호소하는 것을 보고 그 제도를 옹호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을 거기에 포함시켜 봅시다. 납치와 노예 제도는 노아 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표준입니다 .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티레 로 넘어갑니다 . 티레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을 따라 있는 도시입니다. 티레 와 시돈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페니키아인, 우리가 페니키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던 해상 민족입니다.

그러니 페니키아인들이여, 티레 의 세 가지 죄 때문에 , 아니 네 가지 죄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리라. 티레가 포로들을 에돔에 통째로 팔아넘겼으니, 에돔도 노예를 사고파는 셈인가 보군. 그러니 같은 뜻이로군.

아, 납치에 노예 무역까지. 그리고 그건 그렇고, 이제 그만 좀 해야겠다. 그만하자.

죄송해요. 말하기 전에 항상 뭔가를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그녀는 포로들을 에돔에 통째로 팔아넘겼어요.

하나 있습니다. 형제 조약을 무시한 거죠. 자, 그건 하나의 범죄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세어 본다면 , 두 명이라고 해 봅시다. 노예 무역이 있었죠. 하지만 이 노예 무역을 하면서 형제애 조약을 무시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국가들이 때때로 동등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동등 조약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들은 동등 합니다 .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와 조약을 맺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 이스라엘이나 유다였을지도 모르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어." 그들은 이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조약 상대국의 땅에 살던 공동체 전체를 포로로 잡아 노예로 팔았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조약이 위반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는 지을 수 있어도 네 가지는 못 참는 거예요.

티레 성벽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언제 성취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패배했는데, 이는 아모스가 예언한 지 약 15년 후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많습니다. 티레 ? 티레는 탈출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티레를 위협했지만 , 도시를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티레의 종주국, 즉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티레는 4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티레 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에돔으로 옮겨가십니다.

노예 무역에 그렇게 관여했기 때문에 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에돔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세 가지 죄악 때문에, 아니 네 가지 죄악 때문에도 내가 마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자기 형제를 쫓아가 그 땅의 부녀들을 죽였음이었요, 그의 분노가 끓이지 아니하며 그의 격노가 견잡을 수 없이 타올랐음이니라.

자, 거기에는 네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 그냥 공식적으로 몇 개의 진술이 나왔는지 세어 보면 되는 거야."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음,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일곱이나 여덟 개쯤 될 거예요. 숫자를 세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어야 해요. 여기는 딱 두 개뿐인 것 같아요.

그는 칼을 휘두르며 형을 쫓아가 그 땅의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군사적 폭력입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병렬적으로 언급된 것은 강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가 끊임없이 타올랐고, 그의 분노는 억제할 수 없이 불타올랐습니다. 음, 그게 바로 군사적 폭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강조해서 하나만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처럼 네 가지 뚜렷한 죄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만에 불을 보내 보스라 요새들을 삼켜 버리겠다.

그 지역들은 에돔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불의 강도를 보십시오.

좋아, 다음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의 세 가지 죄 때문에, 심지어 네 가지 죄 때문에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네 가지 목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경을 확장하기 위해 길르앗의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길르앗이여.

그들은 여기서 정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바닥에 철판이 깔린 썰매로 그들을 타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전쟁의 다른 곳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르앗의 임신부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습니다. 우리가 임신부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아기들을 죽이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량 폭력과 살인, 그리고 거의 집단 학살에 가까운

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음, 폭력과 탐욕이라고 하면 두 가지 범죄를 모두 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군사적 폭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제게는 단 하나의 범죄일 뿐입니다. 암몬의 주요 도시인 라바의 성벽에 불을 지르고, 전투의 날 전쟁의 함성 속에서, 폭풍우 치는 날 강풍 속에서 요새들을 불태우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전쟁의 함성 과 강풍이 불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임산부의 배를 가르면 전쟁 이 닥쳐올 것이고, 당신은 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시리아의 침략, 어쩌면 그 후 바빌로니아의 침략과 함께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정복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그와 그의 신하들도 함께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네 가지 명단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 구분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장 구분은 훨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아니 네 가지 죄 때문에라도 나는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마치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소리 같다. 모든 신탁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그가 뭘 잘못했을까요?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재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정복한 것 같은데, 이게 언급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 무덤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리아인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조상의 뼈를 불태우게 한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요 .

매장은 이 문화권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중요한데, 무덤을 더럽히는 것은 최악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동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무례하네요. 사실, 무덤에 새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페니키아 지역에서는 누군가 무덤에 비문을 새겼는데, 무덤을 더럽히는 사람에게 저주가 내린다는 뜻입니다.

감히 내 무덤에 손대지 마. 여기 아무개가 누워 있단다. 감히 이 무덤에 손대지 마. 신들이 널 잡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저주가 따르는 거죠. 모압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군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노아의 명령을 어겼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를 영속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어 기론 요새를 삼키리라 . 모압은 전쟁의 함성과 나팔 소리에 크게 소란스러워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 통치자를 멸망시키고 그와 함께 모든 신하를 죽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외국인인 세 명, 먼 친척 세 명을 만났고,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형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 이 일이 정말 슬픈 이유는 야곱이 살아 있던 요셉 시대에 가족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으며,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결국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 노예로 팔아치우려는 계획의 주모자였던 유다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 한 짓을 기억하세요. "네가 말한 네 막내 동생, 요셉의 친형제이자 그들의 어머니인 베냐민을 데려오너라."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요셉은 협박했습니다 .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절도를 꾸며 베냐민이 뭔가를 훔친 것처럼 보이게 했고, " 이 아이를 가두어 버릴 거야 . 그는 나와 함께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안 돼, 안 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 아이는 아빠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라헬의 두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걸 받아들였고, "아니, 이건 아버지를 죽일 거야."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 되었고 , 그것이 이상과 모델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면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고 ,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 환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아의 명령을 넘어,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모세의 율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은 모세 율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NIV에서는 "거짓 신들"로 번역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표현일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단지 그들을 "거짓"이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때때로 우상은 "거짓"으로 지칭됩니다.

그들은 거짓입니다. 거짓 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해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죠.

예레미야가 훨씬 나중에 만났던 선지자들처럼 실제로는 심판을 받을 때 희망의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승배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주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켜 버리겠다." 네 가지 죄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저버렸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 그리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어떻게 저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최대 두 번 정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네 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쯤 이스라엘은 '아, 이제 그들의 목에 올라미를 씌웠으니, 이제 좀 당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원수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옴을 알리는 서곡이며, 그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로버트 치죐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사자가 울부짖으니,
아모스야, 누가 두려워하랴? 1A 세션, 선지자가 청중을 함정에 빠뜨리다.
아모스 1:1-2:16.